"중단'의료현안협의체'신속히 재개해야"

전남 의대유치 추진단 강력 촉구 '의대없는 전남 신설' 의제 반영 대국민홍보 등 공감대 형성 주력

전남도가 지난 2월 잠정 중단된 의료현안협 의체 신속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청 서재 필실에서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 의'를 열고 지난 1월 국회 대토론회 후속 활동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의대 설립 관련 동 향을 공유하고, 의대 유치 건의 및 활동 사항 점 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단은 우선 전남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사 스 팟광고를 비롯해 KTX,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 용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잠정 중단된 의료현안 협의체 조속 재개를 촉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의제 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기

로 했다.

정책연대를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차원에서 '의대신설'을 촉구하는 한편의 료현안협의체 논의 재개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 며 유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장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회 의에서 "1월 재개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다시 중단돼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대토론회를 통 해 결집된 도민의 의대 설립 염원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

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추진단은 또 의료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와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중단 된 상태다. 회의 당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의 협은 이에 반발 현안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정부는 의협의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필수의 료 지원대책을 논의할 의정협의는 예정대로 이 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이 본격적인 투 쟁 체제로 전환해 당분간 협의 재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근산 기자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전망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과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 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 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기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변수 가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 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 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 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 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 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 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 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 체공휴일이 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 ▶1면에서 계속

또 지역 부품기업들이 미래차산업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과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맞춤형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역량강화 사업에 주력한다.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 인공지 능 기반 센서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차 부품인 증센터를 구축한다. 초연결 모빌리티 서비스산 업 육성, 자율주행 순환도로 구축 등 실증사업 과 미래차 기술개발 지원센터 및 디지털 기반 상용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해 산업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도심 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등대한민국제1의 미래차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 '미래차 비전 선포 식'을 열어 산업인프라 확대, 지역 부품기업 역 량 강화,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차 선도 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 이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시 감사위, 사실관계 확인

광주시 산하기관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 약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광주 한 미장업체와 특혜성 수의계 약을 연이어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계약금액은 4,200만원 상당으로, 안내실 구매설치공사·빛고을체육관 방수공사·진입로 공사 등 3가지 사업을 해당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지난해 3월 안내 실 구매설치공사 당시 해당 업체와 2,498만원 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어 지난해 4월 식당 진입로 보수공사 명 목으로 836만원의 수의계약을, 지난해 5월에 는 도장보수로 949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을 추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관계자 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원가 절감을 위해 조건 이 맞는 업체와 연달아 계약한 것이다"며 "특혜 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안내실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공사 진행 시 업체에 비용을 받지 않 고 폐기 처리를 부탁했다"며 "내부 집기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일 자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져 현재 감사 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감사를 통해 소명하겠 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추억의 음악 다방 협약

광주시 동구와 써자비신행회는 15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어르신을 위한 추억의 음악다방&짜장데이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악전문 DJ가 운영하는 추억의 음악 다방과 봉사자들이 준비한 짜장 면을 매월 1회 제공한다, /동구 제공

전남도, 문화예술 활성화 20개 특화사업 추진

17개 시군 우수 자원 활용 '예향 남도' 가치 확산 중점

전남도가 올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20개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군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 용한 예향 남도의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활성화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우수 전통 문 화예술 핵심 자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 문화 향 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순 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의 얼과 항꾸네 달빛소 리의 전통국악 공연', '광양 남도문예 르네상스 화살로드활쏘기대회', '화순금요일엔 고인돌 캠핑 · 고인돌 유적지 연계 캠핑 프로그램', '강 진 연극 모란이 피기까지 우리는의 김영랑 시인 다"고 말했다.

을 소재로 한 창작공연'등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 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15일 "시군 특화사업을 통해 전통 문화와 예술 자원을 활용 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민이 다양 한 문화예술 행사를 쉽게 접하고 즐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전남의 문화예술자원 콘 텐츠를 확보해 즐기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 /정근산 기자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3년 3월 15일 임시사원 총회에서 사원전원일치로 주식회사 인터 메디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유한회사 인터메디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270번길 25, 112호 (월출동,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 윤 상 기





